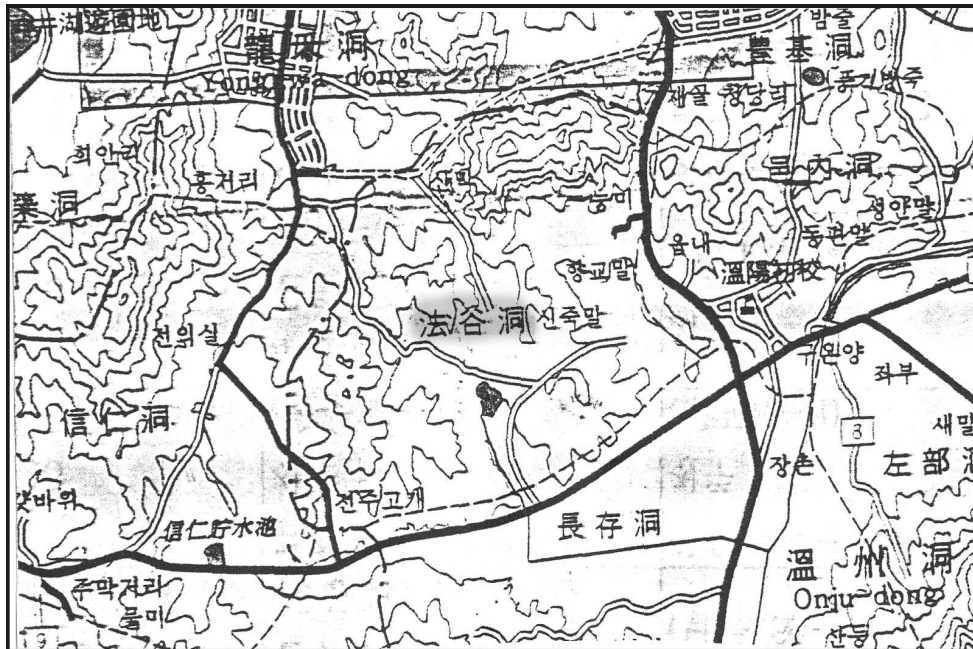


(4) 법곡동 《 법곡 1통 ~ 법곡 2통 》

<법곡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법곡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법곡동(法谷洞) 【동】 : 본래 온양군 읍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능미, 가무일부를 병합하여 법곡리라 하여 아산군 온양면(읍)에 편입 되었다가 1986년 온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법곡동이 됨.

법곡 1통은 마을입구 강청묘 산에 정경부인 묘소가 있었으며 지금도 그말이 유래되어 능미라고 칭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부지이다.

2통은 마을 모양이 전봇대와 같다하여 전주고개로 불린다. 능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통별 인구분포

법곡동의 총 인구는 339명이다.

구 분 마 을 명	계	남자	여자
법곡 1통(능미)	257명	129명	128명
법곡 2통(전주고개)	82명	39명	43명

－ 통별 가구수

법곡동의 총 가구 수는 113가구로 농가가 87가구, 비농가가 26가구 이다.

구 분 마 을 명	계	농가	비농가
법곡 1통(능미)	80 가구	59 가구	21 가구
법곡 2통(전주고개)	33 가구	28 가구	5 가구

－ 통별 생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업	기타
법곡1통(능미)	100%	74%	26%
법곡2통(전주고개)	100%	85%	15%

－ 통별 농경지

구 분 마 을 명	계	밭	논	기타
법곡1통(능미)	75.5ha	22.5ha	53ha	1ha
법곡2통 (전주고개)	34ha	11ha	23ha	-

－ 통별 농기계

구 분 마 을 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법곡1통 (능미)	10대	3대	3대	5대	15대	2대	1대
법곡2통 (전주고개)	10대	2대	3대	5대	10대	1대	1대

－ 통별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마을회관	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법곡1통(능미)	1 개소	1조	1조	－	－
법곡2통 (전주고개)	1 개소	1조	1조	－	1조

－ 통별 고령자

법곡 1통 최고령자는 서오전 할머니(99세)이시고, 2통은 표언년 할머니(94세)이시다.

－ 통별 호당 소득

월평균 소득이 법곡 1통은 약 100만원이고, 법곡 2통은 약 60만원 정도이다.

－ 통별 사진

<법곡 1통>



온양역에서 동남방향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여
읍내동 주공아파트를 도로사이에 마주하고 있다.

<법곡 2통>



능미 서쪽에 위치한 마을
623도로와 인접한(전주고개) 마을

－ 지명

·가부(歌舞) 【마을】 → 전주고개.

- 능 - 미 【마을】 법곡동 북동쪽에 있는 마을. 신창백맹의 묘가 있음.
- 매 - 봉【매봉재】 【산】 매봉.
- 방죽 - 거리 【마을】 → 새터말.
- 새터 - 말【신죽말, 방죽거리】 【마을】 능미 서쪽에 새로 된 마을.
- 새터말 - 방죽 【방죽】 새터말 앞에 있는 방죽.
- 서랍 - 들 【들】 법곡동 동쪽에 있는 들.
- 신죽 - 말 【마을】 → 새터말.
- 신창백맹공 - 단비(新昌伯孟公壇碑) 【비】 능미 입구에 있는 신창백 맹공의 단비.



- 열녀전씨 - 비(烈女全氏碑) 【비】 능미 동쪽 큰 길에 있는 신영균(申榮均)의 아내 용궁 전영숙(全榮淑)의 열행을 표창한 비.
- 전주 - 고개【가무】 【마을】 능미 동북쪽에 있는 마을 모양이 전주와 같다 함.
- 주막 - 거리 【마을】 법곡동의 주막이 있는 마을.
- 참새 - 골 【마을】 매봉 쪽에 있는 마을. 찬 샘이 있음.

－ 전설

법곡동에 얹힌 이야기로 순종대왕의 일이다. 강설봉이라는 정승이 계셨는데 처를 잃어 상중이었다. 그날 마침 궁궐에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아 정승께서는 입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입궐은 했으나 상을 당한 터이라 묵묵히 앉아 계셨다. 임금님과 함께 회의하는 중에도 정승은 말 한마디 아니하셨다. 임금님께서 괴이여겨 그 사연을 물어 본즉 내상을 입고 입궐한 자가 무슨 말을 하겠사옵니까? 정승이 대답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시길 그럼 장례는 치루었는가? 정승은 장례는 무엇입니까? 신위주도 안잡아 왔습니다. 임금 왈 온양골에 내려가면 내가 신위주를 잡아 놓은데가 있노라 그곳에 가서 상을 치러라 하시며 친히 하사하셨다. 정승께서 온양에 내려와 관가에 이 이야기를 하니 원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 정승께서는 임금님께 내리신 하사장을 제시했다. 친필로 신위주를 준 것을 확인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묘자리를 잡았다. 묘는 강경묘라 하는데 이 뜻은 강씨 정경부인의 묘이다. 그래서 법곡동에는 능묘가 있어 능미라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능미 보다는 법곡동이라고 불리며, 뒷동산에 이방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방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유래 되었다고 한다.

설에 의하면 능미 뒷산이 왕릉자리라고 하여 지금도 땅을 파헤치면 기와조각이 나온다.

1000년전 고려시대 진주 강씨가 터를 잡고 있다가 조선왕조 숙종때 윤원영씨가 득세하면서 윤씨 문중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며 이 마을 윤성용씨는 뒷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청자병을 한 점 얻었다고 한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1통은 독지가의 부지회사와 마을 주민들의 공동작업으로 마을회관 2층(44평)을 건립하고 부녀회는 절미 저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년 1회 경로잔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하며 주기적으로 마을 안팎 대청소를 하고 있다.

2통은 주민공동작업으로 철근콘크리트 벽돌 단층(25평)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부녀회와 청년회의 주관으로 경로잔치, 민속놀이잔치를 년 1회 실시한다.